光日春秋

로스쿨, 로와 스쿨 사이

한 승 헌

지난 7월 3일 오후, '여야 로스쿨법 처리 합의' - 라는 긴급 뉴스가 나오자 성급한 축하전화가 몇 군데서 왔다. 내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이끌고 로스쿨법의 성안, 입법에 힘을 기울여 온 사실을 기억하는 분들의 음성이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이번 회기에는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뒤집기 뉴스가 나왔다. 나는 생각해보았다. 만일 이번에 또 미루어지면 여러 대학과 학생, 수험생들의 낭패와 손실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인가.

나의 이런 조바심과는 달리, 밤 11시가 넘고 30분이 지나도 고대하는 뉴스는 뜨지 않았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뉴스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국회 회기가 끝나는 자정 3분 전에 로스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긴급 뉴스. -심야인데도 여기저기서 축하전화가 연달아 걸려왔다. 나는 큰 보람을 느꼈다.

이로써 사개추위가 2년 동안 역동적으로 추진해온 사법개혁 작업은 대체로 마무리가 된 셈이다.

되돌아보건대, 사법개혁의 여러 과제 중에서.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배심재판제의 도입, 수사기관 조서 중심 재판의 폐단을 바로잡는 공판중심주의 확립 등이 유난히 힘들었지만,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의 찬반양론이 뜨겁기로는 로스쿨법이 단연 으뜸이었다. 이 법안을 눈 흘겨보는 국회의 늑장부리기 또한 메달 감이었다.

10여년 논란 끝의 '만성(晩成)'이라고 해서 꼭 '대기(大器)'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국회가 직권상정 처리라는 비상절차를 밟았는데도 별다른 비판, 비난이 없는 것은 입법 내용을 평가하기 전에 우선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로스쿨 입학 총 정원의 책정은 그동안 큰 관심사가 되어왔다. 그렇다고 로스쿨 논의가 이 문제에만 묶여 있다시피 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법학계나 법조계에서도 입학정원 논의에만 매달리지 말고, 어떤 사람을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잘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법학적성시험, 교육과정, 강의방식 등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 개발을 해서 정부와 학교 그리고 교수들이 서로의 숙제를 함께 풀어가야 할 것이다.

로스쿨에서는 지금의 법대(학부) 교육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납득할만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실무교육을 병행한다는 정도의 말은 정답이 되지 못한다. 학부 4년의 법학전공자와 비법학전공자를 어떻게 같은 수준에 놓고 강의를 할 수가 있을까 - 이 점도 난제 중의 하나다.

물론,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당국이나 각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챙기고 있겠지만, 로스쿨 교육의 본질문제에 맞닿아 있는 사안들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은 채 단지 입학 정원을 둘러싼 격론만 되풀이하는 것은 교육자나 법조인의 양식에 합당한 일이 아니다.

대학사회의 로스쿨 과열을 이해는 하면서도 그 정도와 행태에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민주사회에서는 사법부를 포함한 법조계도 여러 직역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그 직분이 다소 중요시된다고 해서 로스쿨을 놓고 사생결단이라도 할 듯이 나서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일본 정부는 로스쿨(법학대학원) 설립을 원하는 모든 대학에 인가를 내주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졸업생이 나온 작년의 사법시험 합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학교 측이나 수험생, 재학생 모두가 난감해졌다. 낙방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입학 정원 및 인가 학교 수의 적정 여부와 함수관계가 있다. 그것은 낙방생 개개인의 불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 실패의 탓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일본의 한 교수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 한국은 일본의 실패를 거울삼아 시행착오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 설

'가짜 학위' 감독에 놀아난 광주비엔날레

박사학위 위조와 논문표절 의혹을 받아 온 신정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의 박사학위는 물론 학사 · 석사 학위도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감독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동국대는 11일 "예일대는 신 교수가 동국대에 제출한 예일대 미술사학과 박사 학위가 허위일 뿐 아니라 예일대 학생으로 등록한 기록도 없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가짜 박사 소동은 그동안 심심치 않게 있어 왔다. 하지만, 학사·석사 학위마저 가짜인 사람이 어떻게 광주 국제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선임될 수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측의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신씨의 학력이 모조리 가짜 아니냐는 의심은 작년 말부터 미술계에 파다했다. 특히 '신씨가 예일대에서 학사·석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인이 별로 없어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 아니냐'라는 냉소적 시각까지 있었다고 한다. 선임과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이 같은 황당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신씨 주장에 따르면 서양화·판화 복수전공 학사학위에 경영학 석사학위까지 따는 데 3~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는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얘기다. 그런데도 비엔날레 측이 학위를 조회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신씨의 학위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난 만큼 예술 감독직 내정 철회는 당연하다. 그러나 '가짜 학위' 감독에 놀아난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은 국내외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08 광주비엔날레 행사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비엔날레 측은 예술감독 선정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광주시를 비롯한 비엔날레 관련 단체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고소 취소 권유' 명분 떨어진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이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씨가 박근혜 전 대표측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도록 김씨에게 권유하기로 했다. 대선후보 경선에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우려한 당 지도부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고소 취소 권유는 명분이 떨어진다. 김씨가 고소할 때는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사건이 특수부에 배당되자 '이명박 죽이기 의혹' '계좌추적 불가' 등을 내세우며 고소 취소를 요구했다. 유리하다 싶으면 검찰을 끌어들이고 불리하면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는 구태와 다를 것이 없다.

당사자인 김씨는 고소를 취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검찰의 수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도 검찰이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다. 한나라당 경선 전에 수사를 끝내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번 사태는 한나라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한나라당은 경선후보들에 대한 검증은 당 검증위원회에서 맡는 것이 순리라고 했으나 검증위원회는 유명무실해졌다. 1차 검증에서 제기된 의혹을 파헤치기보다는 면죄부를 줌으로써 국민들의 불신만 사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검찰을 못믿겠다고 하지만 이 전 시장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 유력한 대선후보의 재산 형성과정이나 자질, 도덕성 등은 국민들의 중대한 관심사다. 한나라당은 지나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검찰은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바란다. 의혹이 깨끗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치공방만 난무하게 된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서 수사를 중단하면 정치권력에 대한 눈치보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독선적인 우리 한국인

우리 한국인만큼 남의 의견이나 처지는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이 제일이라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민족도 드물 것이다.

나와 다른 것, 나와 맞지 않은 것은 일단 '잘못'으로 분류하여 배척하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각목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기도 한다.

흔히들 미국을 인종 차별의 표본 나라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지구상에서 그래도 미국만큼 관대하고 인종 차별이 적은 나라는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오히려 차별이 심한 나라는 한국이다.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서 가게 열어 장사하기 어렵고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가서 직장 생활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근로자, 혼혈아, 또 지체 부자유자 같은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저능한 부류로 분리 시켜놓고 있다.

지난번 하인스 워드의 부각을 계기로 혼혈아 차별의 자성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혼혈아 차별 그 자체 뿐 아니라 깊숙이 깔려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독선과 배타의 문제에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무시하고 높다고 생각되는 상대에게는 저자세가 되는 사대주의적 아부 근성 말이다.

잘생긴 백인 혼혈아였더라도 차별을 할까.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에서 온 훤칠한 백인 근로자였더라도 그렇게 무시하겠는가.

어렸을 때는 어린 거지가 많은 시대였다. 아마도 전쟁고아들이었으리라. 그들이 깡통을 들고 동냥을 온다 치면 동내 아이들이 막대기로 때리거나 돌맹이를 던지며 쫓아냈다. 맹인을 보면 재수 없다고 침을 뱉었고 소아마비 지체부자유아는 애들이 줄줄 따라다니며 걸음걸이를 흉내 내는 놀림감의 대상이 되곤 했다. 혼혈아들은 부정의 산물로 낙인찍어 접근을 꺼려했으며 특히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에겐 어김없이 멸시의 시선이 추가되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랬었다. '만약 내 자식이 그런 처지에 처해있고 밖에서 그런 놀림의 대상이었다면…'.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아량이 전혀 없이 우리는 그랬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들 하고 있다.

혼혈아 문제는 대부분 한국 전쟁 및 기타 많은 이유들로 인한 불행했던 과거의 산물이다. 지금도 사업 등 많은 이유로 한국인들이 세계 곳곳에 흘어져 있으면서 도처에서 혼혈아들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같은 핏줄인 고국의 형제들로부터의 천시의 눈총 때문에 우리 안으로 데려오질 못하고 처처에 버려지고 있다.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 우리 국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뒤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게 한다면 수많은 거금을 들여 특사를 해외에 파견, 한국을 선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며 가난한 나라에서 온 근로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준다면 자기 나라에서 한국을 어떻게 선전할 것인지 하는 것은 뻔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차별과 학대, 임금 착취를 통해 반한 인사를 양성하고 있다. 돈을 들여가면서 말이다.

서점서 공짜 책 읽고서 훼손까지 해서야

며칠 전 시내 대형 서점에 갔다.

필요한 책을 골라 산 뒤 서점 내 한쪽에 마련된 쉼터에서 쉬고 있는데 바로 옆에 20대 중반인 듯한 여성이 큰 가방을 내려놓더니 책꽂이에서 가져온 책 한 권을 펼쳐들고 보고 있었다.

슬쩍 곁눈으로 보니 아예 연필로 줄을 긋고 동그라미 등을 그려가며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여성은 한 10여분간 책을 보다말고 큰 가방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꺼내 보고 있던 책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죄다 찍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고는 또 노트북까지 꺼내 책장을 넘기며 필요한 정보 등 뭔가를 열심히 입력하고 있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바로 옆에 앉았던 여성이 노트북과 사진기 등을 정리해 가방 속에 집어넣고는 쏜살같이 서점을 빠져나갔다.

그런데 그가 앉았던 자리에는 조금 전까지 열심히 보고 사진까지 찍었던 그 책이 내팽개쳐져 있었다.

공짜로 책을 보고 시원한 휴식 공간에서 쉬었다 가면서 고맙다고 인사는 못할망정 책을 훼손하고 아무렇게나 방치해서야 되겠는가.

▲문동기·광주시 광산구 사호동

기 고

최 형 섭

광주국체, 교통준법 업 그레이드하자

'꿈도 함께, 전진도 함께, 영광도 함께'라는 구호아래 빛고을 광주에서 오는 10월 제88회 전국체전이 열린다.

예향·문화의 도시에서 17년만에 다시 맞는 전국체전이다. 지금 광주시는 전국체전 선수단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다.

광주국체 성공을 위해서는 보행·교통질서부터 지키는 것이 먼저 아닐까. 신호등·정지선 무시, 보행자 멋대로 무단횡단, 불법유턴부터 바로잡자.

광주시내 곳곳의 불법주정차, 난폭·과속운전 등은 정말 부끄러운 광주의 자화상이다. 이래서 어떻게 전국체전 손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상당수 시민등이 교차로의 꼬리 물기 등 불법 운전은 다른 도시보다 훨씬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규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을 갖도록 해서는 안된다.

사실이 아니겠지만 택시 승객중 개인택시를 기피한다는 말도 조합원들 사이에 들린다. 개인택시가 신호위반 등 속도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행하다 보니 같은 거리도 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교통질서뿐만 아니다. 사람과 교통량이 많은 소위 목 좋은 시내 주요 교차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푸른 광주 가꾸기 일환으로 심어 놓은 아름드리 나무에는 낯 뜨거운 문구의 불법 플래카드가 즐비하다. 거리에는 음란성 광고 전단지가 마구 뿌려졌다.

이 상황에서 전국체전 때 광주를 찾을 전국 선수단에게 광주가 문화수도, 예향의 도시, 민주의 성지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

광주의 개인택시 기사들은 외지인이 가장먼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택시라는 점을 고려, 승객에 대해 친절한 말씨와 단정한 복장착용으로 전국체전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전국체전에 대비보다 더 청결한 차량유지,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행 등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또 지난해 광주시내 자동차관련 14개 사업조합 조합원들이 발족한 광주교통경제인단체(광교협) 회원사들도 금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광주 위상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기로 다짐했다.

질서는 남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기 전에 스스로 지켜야 한다. 시민 모두가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위해 행정 관청에만 맡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스스로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개인택시조합 이사장·광주교통경제인협회 부회장〉

마구잡이식 카드 발급 경쟁에 멍드는 국민경제

동생이 은행 텔러다. 은행 텔러란 은행 콜센타로 걸려오는 전화 상담을 담당한다.

그런데 얼마전 동생으로부터 자신이 다니는 은행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부탁해달라며 신용카드 신청서를 건네받았다.

신용카드 신청서에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필수 입력사항이 진하게 표시돼 있었다. 동생 부탁이니 당연히 들어주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동생 말로는 카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인사평가 점수가 크게 깎여 죽기 살기로 매달릴 수밖에 없고 실적을 채우기 위해 직원들은 타 은행 직원과 신용카드를 서로 맞교환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인 은행 창구 텔러의 경우 인사평가가 나쁠 경우 재계약 시 불이익을 받거나 정규직 전환 시험조차 치루지 못하는 탓에 실적 압박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은행들이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오죽했으면 은행 직원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는 카드 맞교환을 희망하는 내용들이 떠있겠냐고 한숨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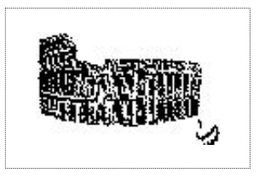
은행들의 마구잡이식 카드발급 경쟁에 멍드는건 그걸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직원들이 아니라 결국 빚내서 사는 국민경제 아닐까?

▲강은구·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 等 鼓

불가사의



불가사의(不可思議)는 본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상태나 깨달음을 뜻하는 불교 용어다. '억' '조' '경'을 훌쩍 뛰어넘어 모든 숫자 중 가장 큰 수인 무량수를 의미하기도 한다.

불가사의하면 통상 놀랄만한 건축 조형물인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떠올리게 된다. BC 2세기 비잔틴의 수학자 필론이 선정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를 비롯해 올림피아의 제우스 상, 바빌론의 공중정원,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 아르테미스 신전 등이 그것이다.

불가사의도 시대에 따라 바뀐다. 최근 스위스 영화제작자가 세운 '신 7대 불가사의 재단'에 의해 새로운 7대 불가사의가 발표됐다. 재단 측은 200여곳의 후보지를 뽑은 뒤 연초부터 최종 후보지 21곳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해 7곳을 선정했다.

전 세계에서 1억명 이상이 투표한 결과 중국 만리장성과 잉카 유적인 마추픽추, 브라질의 거대 예수상, 로마 콜롯세움, 인도 타지마할, 멕시코 마야 유적지, 요르단의 고대도시 페트라가 신 7대 불가사의에 뽑혔다. 중국 네티즌의 몰표에 힘입어 만리장성이 선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불공정 시비가 일기도 했으나 해당 국가에서는 축하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7대 불가사의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적지 않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수도권 일대 집값은 상승했다.

정치판도 예외는 아니다. 여권 통합과 유력 대선후보들의 각종 의혹 규명을 둘러싸고 같은 당이나 정파에서 조차 상반된 의견을 내놓아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불가사의와 대칭되는 용어를 굳이 찾자면 진실이다.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는 놀랄만한 건축물들과는 달리 일상에서의 불가사의는 적을수록 좋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 회 1 부 2200-618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F A X 222-8005〉 광 고 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사 업 2 부 2200-552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